

AI News, Mar 2023

1) OpenAI가 멀티 모달 AI인 'GPT-4'를 출시

1. **Summary** : OpenAI는 텍스트를 생성하고 이미지 및 텍스트를 입력 할 수 있는 멀티 모달 AI 모델인 **GPT-4를 출시**했다.GPT-4는 다양한 전문 및 학술 벤치마크에서 "인간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며 이전 모델인 GPT-3.5보다 눈에 띄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현재로서는 ChatGPT Plus를 통해 OpenAI의 유료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발자는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여 API에 액세스할 수 있다.아직까지는 완전히 답변을 신뢰할 수 있지 않으며, 유해한 답변을 하는 경향을 더욱 줄였다.
2. **Implication** :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ChatGPT보다 훨씬 더 개선된 엔진인 GPT-4가 공개된 만큼,기존 GPT보다 얼마나 더 개선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또한 대규모 언어 모델의 대표격 중에 하나인 **GPT계열에서 멀티 모달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3. **Category** : 멀티 모달, 생성 모델
4. **Reference** : <https://techcrunch.com/2023/03/14/openai-releases-gpt-4-ai-that-it-claims-is-state-of-the-art/>

2)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뜬다

1. **Summary** : 생성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입력하는 명령인 **프롬프트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내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 하고 있다.프롬프트 엔지니어는 대형언어모델 등의 AI 도구에 적절한 프롬프트를 조작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을 하며,이미지 생성 AI 도구에서도 원하는 그림을 얻을 수 있는 프롬프트를 만들어 제공하기도 한다.이 분야의 일자리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며, 프롬프트를 판매하는 프롬프트베이스에서는 700명의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공급자로 활동하고 있다.
2. **Implication** : 대규모 언어 모델은 방대한 언어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만큼 특정 영역에 특화되어 있지 않아서모델에게 질문하는 방법, 즉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방식이 결과물의 퀄리티를 좌우하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또한 사내 서비스에 생성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내 데이터 전문가 및 현업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는 하다.
3. **Category** : 생성 모델, 엔지니어링
4. **Reference** :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692>

scraped

금일(3/22) 주간회의에서 간단히 언급드린 **AI/DT 관련 새로운 직군(전세계적으로 인력 극소수)**, 프롬프트 엔지니어(Prompt Engineer)에 대해서 한국어로 잘 정리된 내용이 있어 전달 드립니다.

(Underline요약)

(대학원 지도교수님도 랩미팅에서 미국 여러 지인분들이, 3월초부터 인력 구인 관련해서 요청 다수 발생)

[기사 요약]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코딩을 몰라도 된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언어 감각과 창의적 사고이며, AI(ChatGPT 등)가 역량을 120% 발휘할 수 있게 적합한 지시를 내리는 인력이다.

이에 현업 비즈니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AI와 대화하는 프롬프트 교육 자체도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엔지니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코딩(개발) 능력보다는 생성 AI에 대한 사용 경험과 논리적·언어적 관점에서, AI와 ‘잘 대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업들은 별도의 프롬프트 엔지니어 채용 시험을 거친다. 뤼튼은 프롬프트 설계 시험으로 필요 인력을 뽑을 예정이다.

AI 업계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부족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본다. 새로 생긴 직군이어서 경력자가 없다”며 “AI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는 연구개발 인력에 해당돼 연봉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생성 AI가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목적의 프롬프트(명령어)를 제작하고 테스트하는 업무를 맡는다.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주목받는 것은 AI에 입력하는 질문 수준에 따라 성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글로벌에서는 발 빠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 확보에 나섰다. 구글이 약 5000억원을 투자한 샌프란시스코의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을 비롯해, 영국의 대형 로펌 ‘미시콘 데 레야’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공개적으로 채용하고 나섰다.

“미래에는 코딩 지식보다도 창의적인 생각이 중요하다”며 “변화하는 시장에 빠르게 대처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AI와 대화하는 엔지니어’ 채용을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URL :

- <https://platum.kr/archives/203921>
- <https://english.elpais.com/science-tech/2023-03-16/the-ai-boom-has-created-a-new-career-being-an-expert-at-talking-to-machines.html>
-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84265.html>

3) OpenAI's Foundry will let customers buy dedicated compute to run its AI mod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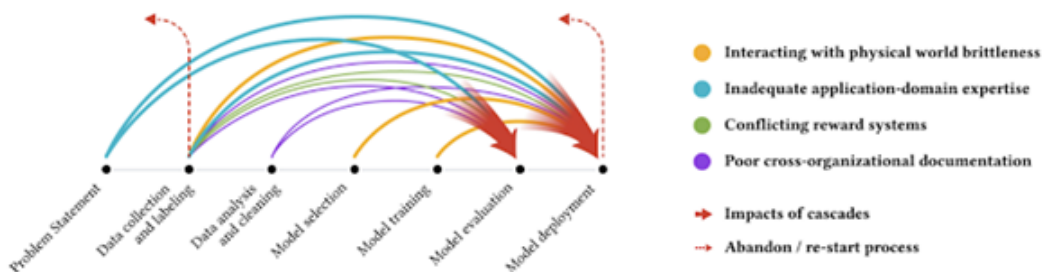
Model instance	Units / Instance	3-month commit		1-year commit	
		Monthly cost	Total commit	Monthly cost	Total commit
GPT-3.5 Turbo	100	\$26,000	\$78,000	\$22,000	\$264,000
DV (8K max context)	300	\$78,000	\$234,000	\$66,000	\$792,000
DV (32K max context)	600	\$156,000	\$468,000	\$132,000	\$1,584,000

1. **Summary** : ChatGPT 개발사인 OpenAI가 개발한 여러 AI모델들과 이를 사용하는 플랫폼인 Foundry를 출시 할 예정이다. 이는 기업용으로 전용 컴퓨팅 자원, 모델 구성 및 활용 권한,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고객사에 적합한 형태로 모델 업그레이드(Fine-tuning)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 **계약 시 ChatGPT 기준 3개월 78,000\$, 1년 264,000\$로 책정**는 되었다.

2. **Implication** : 거대 AI 모델을 학습 및 운용하는 것은 대규모 컴퓨팅 자원과 대량의 양질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이에 일반 회사에서 자체 모델을 개발 및 운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으나, 위와 같은 플랫폼 제휴를 통해 각 회사별 특성에 맞게 Fine-tuning을 수행하여 **AI 개발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업종에서 이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 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3. **Category** : 텍스트, 생성 모델, 비즈니스
4. **Reference** : <https://techcrunch.com/2023/02/21/openai-foundry-will-let-customers-buy-dedicated-capacity-to-run-its-ai-models/>

4) 데이터에 소홀한 AI 업계에 대한 우려심 대두



1. **Summary** : AI 분야에서 데이터 품질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글 연구팀이 2021년도에 인도, 아프리카, 미국의 AI 종사자 53명을 대상으로 이 문제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고, 논문에서는 저평가된 데이터 품질로 인해 문제가 점점 심화되어 이후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Data Cascade 현상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또한, 최근에도 **Data Cascade 현상은 AI 산업에 92% 수준으로 만연**해 있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데이터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3%의 회사만이 기본적인 데이터 품질기준을 만족**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Data Cascade 문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 a. **(1) *데이터 품질 보상/장려 시스템 부족*** : 데이터 품질 향상은 프로세스 별 측정이 쉽지 않아, 보상이 어려움.
 - b. **(2) 데이터 품질에 소홀한 AI 교육** : 대부분의 교육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함.
 - c. **(3) 특화 데이터 구축의 어려움** : 지역, 인구, 현상, 종과 같은 특화된 데이터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디지털화가 어려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처리를 일로써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 **데이터 품질과 가시성을 개선하는 것들에 대한 작업을 성과로써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더불어, 품질 향상에 대한 보상시스템을 개선하고 실무 데이터 상황을 고려한 AI 교육을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논문 및 전문가들은 이야기 하고 있다.

2. **Implication** : SKB에서 현업 AI 과제를 수행하며 느낀 점은 연구나 모델링보다 **데이터나 엔지니어링 작업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보통 하나의 AI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찾아서 분석한 뒤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백엔드 서비스와 연동하고 배포 자동화 및 A/B 테스트를 통해 성능을 측정해 모델이 제대로 동작한다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후 모니터링과 유지보수 작업이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알고리즘이나 모델링 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AI에서 모델이나 알고리즘은 핵심적이지만 그 것에만 집중해서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
3. **Category** : 데이터 품질, 프로세스
4. **Reference** : <https://research.google/pubs/pub49953/>
<https://ai.googleblog.com/2021/06/data-cascades-in-machine-learning.html>
<https://www.reuters.com/technology/google-opens-bard-chatbot-test-users-plans-more-ai-search-2023-02-06/>

5) MIT - IBM Watson, 추가 데이터 없이 모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AI 방법론 개발

1. **Summary** : AI 모델은 의료 이미지에서 질병을 식별하거나 자율 주행 차량의 도로 장애물을 감지하는 등의 더 핵심적인 업무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AI 모델은 이 과정에서 오류 원인을 즉각적으로 알지 못하고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어, **사용자는 모델의 예측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아는 시점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MIT - IBM Watson AI 랩 연구원들은 '메타 모델'이라고 하는 더 작고 간단한 모델을 만들어서 사전 학습된 더 큰 모델에 연결하고 더 큰 모델이 이미 학습한 기능을 사용하여 불확실성 정량화 평가에 도움을 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메타 모델'이 분포 외 탐지 및 오분류 탐지를 비롯한 다양한 작업에서 불확실성을 얼마나 잘 포착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접근 방식을 테스트했다. 이 방법은 각 작업에서 모든 기준선을 능가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는데 필요한 학습 시간도 더 짧았다고 한다.
2. **Implication** : 결론적으로, 이 기술은 더 많은 머신러닝 모델이 불확실성 정량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사용자가 예측을 신뢰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SKB 에서도 관련하여 기존 신경망과는 다른 구조를 가진 대규모 언어 모델(LLM)과 같은, 새로운 종류의 모델에 이 기술을 적용하여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3. **Category** : 메타 모델, 모델 성능, 평가
4. **Reference** : <https://news.mit.edu/2023/improving-machine-learning-models-reliability-0213>

6) 카카오브레인, 이미지 생성 AI '비 에디트' 출시 > TAG:

1. **Summary** : 카카오브레인이 새로운 이미지 생성 AI '비 에디트(B^EDIT)' 웹 서비스를 공개했다. 이는 기존에 공개했던 초 거대 AI 'Karlo'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22년 10월 공개한 모바일용 이미지 생성 AI '비 디스커버'에 이은 두번째 이미지 생성 AI 모델이다.
이는 **바로크, 3D, 일본 애니메이션 등 30가지 화풍 중 원하는 화풍과 명령어를 입력하면 AI가 샘플 이미지 8장을 5~10초 이내에 생성**해주며, 추가 버튼을 통해 최대 32장까지 생성 가능하다.
또한 아웃페인팅, 인페인팅, CS2I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는 오픈 베타 서비스 이후 사용자 피드백 및 업데이트 과정을 거쳐 공식 오픈 될 예정이다.
 - 아웃페인팅: 주어진 이미지와 어울리는 그림을 연속적으로 생성, 확장하는 기능
 - 인페인팅: 특정 영역을 새로운 이미지로 변경 및 편집 하는 기능
 - CS2I: 이미지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원하는 색상으로 대략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입력하면 AI가 해당 부분을 생성하는 기능
2. **Implication** : DALL-E2(OpenAI), Dreambooth(Google), Novel AI(Anlatan), Stable Diffusion(Stability AI) 등 다양한 이미지 생성 모델(서비스)에 이어, 카카오도 웹기반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해당 서비스는 오픈 베타 단계로, 유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 설문조사 질문 중에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동영상 편집 도구' 항목이 있어 해당 서비스의 방향성이 **이미지 편집 툴을 넘어, 크리에이터를 위한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고려하는 걸 수도 있을 듯 하다.
3. **Category** : 이미지, 생성 모델, 비즈니스
4. **Reference** :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812><https://bedit.kakaobrain.com/>

7) 로블록스, 생성형 AI 비전 공개...“콘텐츠 자동 생산 도구로 크리에이터 돕는다” >

1. **Summary** : 로블록스가 로블록스 스튜디오에 '텍스트 명령어 기반 생성형 AI' 및 '코드를 완성하는 생성형 AI'라는 두가지 새로운 AI 도구를 출시할 예정이다.
크리에이터는 로블록스 스튜디오(Roblox Studio)를 이용해 체험을 구축하고 모든 인기 플랫폼에 즉시 게시할 수 있으며, 매일 전 세계 5,880만 명의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다.
로블록스는 이미 내부 프로토타입을 통해 전문적인 생성형 AI 도구가 크리에이터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 수준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일부 크리에이터는 코딩을 할 줄 알지만 고성능 3D 모델링 경험은 적을 수 있고, 그 반대로 모델 설계에 익숙한 크리에이터는 코딩 경험이 많지 않을 수 있다.
로블록스는 이러한 부분에 생성형 AI를 적극 도입하여 초보자도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준비중이며,
크리에이터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행동 양식이 탑재된 통합 3D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크리에이터는 '빨간색, 2인용, 전륜구동식의 컨버터블 스포츠카'와 같은 간단한 문장으로 자동차를 디자인할 수 있다.
제작된 결과물은 빨간색 스포츠카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3D 가상 세계에서 운전을 가능케 하는 모든 동작이 코드화되어 있다.
2. **Implication** : 현재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이미지, 오디오, 코드, 텍스트, 3D 모델 등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국내 대형 게임사들(NC소프트, 크래프톤)도 **게임 콘텐츠 제작이나 게임 제작 전반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하여 생성형 AI에 대한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생성형 AI를 적용시키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 되며, SKB도 미디어 서비스에 이를 적용 시킬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3. **Category** : 생성 모델, 미디어(콘텐츠)

4. **Reference** : <https://www.itworld.co.kr/news/279853>

8) 생각을 이미지로 생성하는 AI기술 등장 >



1. **Summary** :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팀이 이미지 생성 AI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해 시각적 자극을 받은 뇌를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 스캔한 뇌파를 사진 이미지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경찰이 용의자를 식별하는 것을 돕거나 혼수 상태에 있는 환자의 뇌파를 읽고 이미지로 번역하여 환자와 의사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병이나 사고로 실명한 사람들의 시력 회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2. **Implication** : AI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사람이 이해하거나 수행하지 못했던 분야의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SKB에서도 기존에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데이터에 대한 특징을 추출할 때, 같은 방법론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Category** : 이미지, 생성 모델, 연구

4. **Reference** : <https://www.science.org/content/article/ai-re-creates-what-people-see-reading-their-brain-scans>

9) 텍스트만으로 모바일 앱 생성해주는 AI 등장

1. **Summary** :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를 기반으로 모바일 앱을 만들어주는 AI앱 생성기(AI App Generator)가 나왔다.

AI앱 생성기는 사용자가 코딩 지식 없이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생성해주는 모델이며, 사용자는 플랫폼에서 필요한 앱 유형과 선호도를 설명하는 텍스트만 입력하면, 자연어처리(NLP) 및 기계 학습(ML)을 사용해 텍스트를 완전한 기능을 갖춘 애플리케이션으로

로 변환해준다. 색상, 아이콘, 테마, 레이아웃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 및 사진이나 비디오 추가 등 기타 편집 기능도 사용할 수 있으며, 푸시 알림, 인앱 구매, 분석 등과 같은 기능도 제공한다. 무료 평가판을 이용해 모든 사람이 앱을 제작해 볼 수 있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만든 앱을 게시하려면 유료 요금제 중 하나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2. **Implication** : 최근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Generative AI)가 계속 화두에 오르고 있다. appypie의 경우 무료 평가판을 활용해서 모든 사람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훨씬 더 쉽게 (No Code)** 접근할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아주 큰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이렇게 **생성된 앱에 대한 완성도나 실용성에 대한 부분은 향후 시간에 따른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3. **Category** : 텍스트, 생성 모델, 앱
4. **Reference** :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691>
<https://www.geospatialworld.net/news/appy-pie-ai-app-making>

10) BlueMail 사태로 본, Generative AI 에 대한 Apple 의 보수적 태도

1. **Summary** : Apple이 GPT-3 기술을 더한 이메일 앱 BlueMail의 앱스토어 심사 승인을 미뤘다. 이유는 BlueMail의 새로운 기능이 부적절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앱스토어 심사팀은 **BlueMail의 Generative AI가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승인 받으려는 앱에 콘텐츠 필터링 기능을 추가하거나, 사용 가능 연령을 17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Apple이 문제 삼은 부분은 **BlueMail GEM AI** 라 불리는 기능이다. **BlueMail***이 Open AI의 GPT-3 모델을 활용해 개발한 **이 기능은 사용자들의 이전 메일이나 캘린더 스케줄 등을 바탕으로** 이메일을 자동으로 써준다.** 안드로이드, 윈도우, 리눅스, 화웨이 등 다양한 환경에서 GEM AI가 작동 중이며, 사용자가 이메일의 목적을 간략히 써주면 GEM AI가 이메일 전체를 완성한다. 이메일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완성도도 훌륭하다. 현재, Google의 Gmail 에는 문맥에 맞는 적당한 문장을 제안해 주는 **‘Gmail Smart Reply’** 기능이 있으나, 그 길이가 짧고 BlueMail처럼 이메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써주는 수준은 아니다.
2. **Implication** : 이번 BlueMail 이슈는 **‘Generative AI 혁신 vs 사용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Apple이 보수적 태도**를 선택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경쟁사의 Generative AI 가 앱스토어 사용자에게 일으킬 수 있는 지적 재산권 침해 및 부적절 콘텐츠 제공을 막으려는 의도일 수 있다. 반면, BlueMail 창업자 Ben Volach가 비판한 것처럼 Apple이 혁신 기술 전파를 막고 있다는 평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최근, ChatGPT, DALL-E 등 Generative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Apple경쟁사들은 Generative AI 기술이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동안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로 사용자들을 만족시켰던 Apple이 Generative AI 시대에도 업계를

이끌어갈지, 아니면 계속 방어적 태도를 취하며 끌려가는 모양새가 될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3. **Category** : 생성 모델, 인공지능 윤리

4. **Reference** : <https://bluemail.me/>

- <https://www.wsj.com/articles/apple-blocks-update-of-chatgpt-powered-app-as-concerns-grow-over-ais-potential-harm-c4ca9372>

- <https://www.forbes.com/sites/timbajarin/2023/02/21/why-apple-is-not-rushing-to-create-a-more-public-representation-of-its-ai-capabilities/?sh=3f0773317062>

11) EU lawmakers set to settle on OECD defini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1. **Summary** : 유럽의회가 처음으로 인공지능(AI) 규제 프레임워크인 '**AI법(AI Act)**' 초안 작성을 위해 **AI의 정의(definition)**에 대해 합의했다.

EU의 AI법은 AI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며, 유럽에서 제안된 인공지능에 관한 최초의 법률이다.

그간 AI 법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AI의 정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정의를 그대로 채택했으며, OECD의 AI 시스템 정의는 다음과 같다.

AI 시스템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된 **기계 기반 시스템(machine-based system)**을 의미하며,

명시적 또는 암시적 목표를 위해 물리적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predictions)/추천(recommendations)/결정(decisions)**에 대한 결과값을 생성할 수 있다.

이번 합의에 대한 핵심은 '기계 기반(machine-based) 시스템'이라는 문구의 포함 여부이며, 해당 문구 포함에 대한 논쟁이 우/좌파 의원들 사이에서 계속 되고있는 만큼 향후 해당 문구가 제외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3월 초에 AI법 초안에 대한 공동지지 성명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며, EU 집행위는 세부 사항 조율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는 AI법을 공표할 예정이다.

EU의 AI법이 발효되면 일부 서비스는 조치를 취하거나 EU에서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미국/중국 AI 업계가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2. **Implication** : EU의 AI법은 AI 기술을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을 견제하며 영향력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분야에서 AI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해당 법률이 발효되면 **EU에서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소셜 애플리케이션 및 시스템들이 제약을 받을** 예정이며, 인재 채용관련 취업 지원자의 순위를 매기는 이력서 스캔 도구와 같은 **고위험군에 속한 AI 프로그램은 특정 법적 요구 사항이 별도 적용 될 것으로 예상** 된다.

3. **Category** : 인공지능 윤리, 법률 제정

4. **Reference** : <https://www.euractiv.com/section/artificial-intelligence/news/eu-lawmakers-set-to-settle-on-oecd-definition-for-artificial-intelligence/>

<https://www.biometricupdate.com/202303/eu-ai-act-definition-of-ai-aligns-with-oecd-definition-biometric-risk-updated>

+=

